metro
메트로 2014년 6월 23일 월요일 서울판 www.metroseoul.co.kr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남한산성이 한국의 11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22일(한국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한국이 신청한 남한산성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됐다. 하늘에서 본 남한산성의 모습 /경기문화재단 제공

한국 9개업종서 글로벌 톱10

국내 대기업들이 정보통신(IT)·자동차·철강 등 9개 업종에서 글로벌 '톱10' 반열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반도체·가전 등 3개 업종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서 글로벌 10위권에 들었다.

2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 순위를 조사한 결과 주요 22개 업종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IT, 자동차, 철강, 조선기계, 해운, 통신 등 9개 업종에서 10위 안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업종은 가전과 조선 두 곳이다.

TV, 모니터, 백색가전 등 가전 업종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전 세계 1,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가전 부문에서 482억 달러(50조원) 매출로 소니(164억 달러, 3위)를 크게 앞서며 1위에 올랐다. LG전자도 360억 달러 매출로 도시바(125억 달러), 파나소닉(114억 달러) 등을 제치고 2위에 랭크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영업이익률도 3% 안팎으로 영업적자를 낸 소니, 도시바 등 일본 기업들과 대조를 이뤘다.

조선업에서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6개 국내 기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중공업이 519억 달러(54조원)로 1위를 차지했고 대우조선해양(146억 달러), 삼성중공업(142억 달러), 현대미포조선(38억 달러)이 3~5위에 올랐다. STX조선해양(32억 달러)과 한진중공업(24억 달러)도 7, 8위로 순위 안에 들었다.

–CEO스코어 매출순위 분석
가전 – 삼성·LG전자 1, 2위
조선 – 현대중공업 1위 굳건
삼성전, 휴대폰·반도체 2위
포스코, 업황 부진에도 2위
차·해운·통신·유화도 약진

국내 기업 외에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이조선이 각각 2위와 6위를 차지했다.

휴대전화·반도체·철강 등 3개 업종에선 국내 기업들이 2위에 오르며 1위와의 격차를 줄였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와 반도체에서 각각 1328억 달러(139조원)와 356억 달러(37조원) 매출로 애플(1710억 달러)과 인텔(527억 달러)을 추격했다.

삼성전자의 두 업종 매출은 애플과 인텔의 78%와 68% 규모이지만 전년과 비교해 각각 13%포인트, 6%포인트 격차를 좁힌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 업종에서 592억 달러 매출로 룩셈브루크 아세로미탈(794억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업황 부진에도 1위 기업 대비 매출 비중이 71%에서 75%로 4%포인트 높아졌다.

완성차, 자동차부품, 해운, 통신 등 4개 업종에서도 국내 대표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327억 달러로 세계 6위로 도약했다. 특히 1위인 로버트보쉬 대비 매출비중이 52%로, 전년 42%에서 10%포인트나 늘어났다. 영업이익 역시 72% 수준까지 따라붙었다.

완성차 업종에선 현대·기아차가 판매량에서는 세계 5위에 올라있지만 자동차 부문만의 매출로는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운과 통신에서는 한진해운(99억 달러, 7위)과 KT(228억 달러, 10위)가 순위권에 들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13위(638억 달러)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순위가 가장 높았고 GS칼텍스(437억 달러, 16위), 에쓰오일(298억 달러, 19위), LG화학(221억 달러, 20위) 등은 20위 안에 올랐다.

반면 화장품, 유통, 제약, 인터넷 등 생활산업 업종은 세계시장내 존재감이 미약했다.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업종에서 그나마 13위(3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1위 로레알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롯데쇼핑(270억 달러)은 월마트의 5.7% 규모로 글로벌 순위권에는 아예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국내 제약업계 톱 기업인 유한양행(9억 달러)도 1위 기업 매출의 1.6%에 불과했다.

국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 역시 매출이 구글의 3.7%밖에 되지 않는다.

이밖에 건설, 방위산업, 우주산업, 주류, 제지 등의 업종에서도 국내 기업은 존재감이 없었다. /김민지기자 kimd@metroseoul.co.kr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지자체 발표를 종합한 결과 서울과 부산, 경상남·북도, 대구,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전라남·북도, 제주 등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 5년 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 관련 공공요금을 인상한 부산은 올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인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북은 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목포 등 전라남도의 11개 시군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

경남의 지자체들 역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창원과 고성 등 경남 지자체들은 이미 도시가스 요금을 올렸다.

충북과 충남도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대한 용역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1.5~20.0% 인상한다. /김민준기자 mkum@

'앙꼬' 빠진 수송기 실전배치

핵심 전자장비 2종 미장착 임무수행 제한

공군이 최근 실전배치한 첨단 수송기 C-130J(슈퍼 허큘리스)에 핵심 전자전 장비가 아직 장착되지 않아 전시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소식통은 22일 "지난 10일 공군이 전력화 행사를 가진 대형 수송기 C-130J에 전자전 장비 2종인 레이더 조기 경보기(RWR)와 유도탄 접근 경보기(MAWS)가 미장착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두 장비가 없으면 전시에 우리 병력을 적지에 침투시킬 수 없고 전장의 아군이 필요한 보급품을 공급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며 "해외파병 때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에도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C-130J 수송기 기체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상업구매로 구매하고 핵심 전자전 장비는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 정부로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체는 지난 4월 1·2호, 이달 들어 3·4호기의 인도가 이뤄졌지만 전자전 장비인 RWR과 MWAS는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RWR은 그나마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해 내년 3~5월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MWAS는 아직 미 정부가 제작사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간증기자

'문창극 결단' 임박했다

'지명 철회' 부담…답정 '자진 사퇴' 종용 오늘 결판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밤 5박6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결단이 임박했다.

박 대통령은 휴일인 22일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참모들로부터 문 후보자 사태에 대한 여론 동향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 거취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결론은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아니면 제3의 '정면돌파'이 나오느냐다. 하지만 지명철회는 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인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부정적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감에 따라 박 대통령의 고심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문 후보자가 버티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지금 상황에서 문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 끝까지 버티기를 하면 청와대가 지명철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당사자인 문 후보자는 이틀째 두문불출했다. 지신의 거취와 관련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야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마저 등을 돌리는 분위기에서 무작정 버티는 것도 부담되는 만큼 23일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건보 사업장 가입 독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1577-1000)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병언 부인 긴급체포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21일 경기도 성남시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된 후 22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7·30 재보선 선거모드

여야, 수도권 전략공천 '빅매치' 준비

여야는 7·30 재보궐 선거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7·30 선거모드'로 전환했다. 이번 재보선은 최소 14곳에서 최대 16석이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총선'인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내지 못한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어 말 그대로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26일 새누리당 정두언, 성완종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7·30 재보선 선거 지역이 모두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7·30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를 꾸리고 18일부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2~25일 공천신청을 받아 다음달 6~7일 모든 지역의 공천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는 26일부터 서류심사에 착수해 공천 신청자에 대해 1차 '컷오프(예비경선)'로 후보를 걸러낸 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경선을 하거나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3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준비 체제에 착수한다. 공천위는 주승용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내인사와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략공천과 경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적의 인물을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거물급들의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김민준기자

직장인 위한 건강나눔 도심걷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서울시는 21일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건강나눔 도심걷기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바쁜 업무와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건강위험에 놓여있는 30~50대 직장인들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10월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에게 이시형 이사장, 최성조 간고유어 코치의 교육과 전문가 상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눔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용권 등이 지급됐다. 건강나눔 도심걷기 참가자들이 출발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24일 '입학 상담의 날'

경희사이버대가 24일, 다음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오후 6~9시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1층 네오누리에서 '입학 상담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입학상담회에서는 지원 전반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인성검사 맛보기 체험 등이 마련돼 있다.

세월호 특위 오늘 전체회의

기관보고 일정 진통 예상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로 진통이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활동이 시작된 지 20일이 넘었지만 기관보고 일정에 발목이 잡힌 채 공전을 거듭하며 제자리걸음만 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던 대로 기관보고 일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는 지난 20일 회동에서 26~2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기관보고를 받는 등 다음 달 7일까지 각 부처별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30일까지 정부수색기간인 만큼 현장 수색을 지휘하고 책임지는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을 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가족 측이 원하는 시기에 기관보고를 받자며 새누리당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관심병사 GOP 근무하다니…

총기난사 임 병장 인성검사서 문제 논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21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GOP 근무의 병력 운용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남방 한계 이남에 설치된 일반전초인 GOP는 적의 침투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 주력부대에 경고하고 적의 공격시 제한된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곳이다. 철책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인 셈이다.

적진 코앞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간·야간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병력에는 실전에 대비해 K-2 소총 1정과 수류탄 1발, 실탄 75발이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GOP에서는 총기와 실탄을 거의 휴대하다시피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GOP를 운영하는 부대는 인성검사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병력을 엄선해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 병력이 감축되면서 GOP 소요 병력 대비 선발 자원마저 줄어들어 GOP에 투입돼서는 안 될 '관심병사'까지 선발되는 실정이다.

관심병사는 A, B, C급으로 나뉘는데 A급은 특별관심 대상, B급은 중점 관리 대상, C급은 기본 관리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병력 부족으로 A급 관심대상 병사만 제외하고 B, C급 병사는 GOP에 투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총기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 모 병장은 9월 16일 전역을 앞둔 'B급 관심병사'였다. 대학 1학년 재학 중 2012년 12월17일 입대한 그는 지난해 2월 해당 부대로 배치됐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인성검사에선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지만 11월 20일 검사에선 B급 판정을 받았다.

또 GOP 근무 병력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달했다는 지적도 있다. 보통 GOP 병력은 교대 주기가 최소 7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오지에서 장기간 고립된 근무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마음과 몸이 지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GOP 근무 주기가 7개월 이하이면 적응 및 인수인계하는 데 너무 짧다"면서 "8개월 교대 주기도 GOP를 운용하는 지휘관 처지에서 보면 병력을 운용하는 데 제약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피로도가 높아진 GOP 근무 병력에 대한 '힐링'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metroseoul.co.kr

"토마토와 놀다" 2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서 열린 제12회 광주 퇴촌 토마토 축제에서 어린이들이 토마토 풀장에서 토마토를 온몸으로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장 입고 고급아파트 턴 절도범

정장 차림을 하고 서울과 경기 일대 고급아파트만 골라 턴 30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하모(35)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명품 가방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7차례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가의 명품시계 등 3억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아파트 건물 뒤쪽 가스배관이나 나무 등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몰래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정장 차림이기에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들에게 전혀 의심받지 않았지만 훔친 8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퀵서비스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역 서부교차로에 주차장

서울시는 서울역 서부교차로 근처 안전지대를 관광버스 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숭례문 남대문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명소로 주변에 버스 주차장 3개소 34면이 있지만 최대 집중 시 54대가 몰려 20면 가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시는 관광버스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경찰청, 남대문 경찰서와 서울역 서부교차로 안전지대를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로 협의하고 현재 주차장을 설치 중이고 이달 말 완공한다.

단 16인승 이상 관광버스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24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구로, '취업면접 컨설팅' 운영

서울시 구로구가 (사)이미지컨설턴트협회와 함께 '찾아가는 취업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달 관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서서울생활과학고·덕일전자공업고·유한공업고 등에서 진행된다.

여성 발명 창의 교실' 운영

서울시 영등포구는 주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여성 발명 창의 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은 다음달 3·9일 오후 2~6시에 ▲창의성과 발명 ▲지식재산권의 이해 ▲발명의 이해 등으로 진행된다.

전통 시장 '문화공간' 변신

서울시 도봉구 전통시장인 창동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은 최근 이벤트를 개최하며 마을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창동신창시장은 제3회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작 25점을 전시했고 창동골목시장에서는 '노래 한마당 잔치'가 개최됐다.

В горах нашли «Ухо дьявола»

6.66kg 금덩어리 '악마의 귀'

metro Russia

3억원 가치 발견 '화제'

러시아에서 거대 금덩어리 '악마의 귀'가 발견됐다.

최근 이르쿠츠크의 광산에서 한 광부가 6.66 kg의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광부들은 이 금덩어리에 '악마의 귀'라는 별명을 붙였다. 악마의 귀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 때문이다.

광산 관계자는 "계곡의 돌 무더기에서 우연히 금덩어리가 발견됐다"며 "가치는 30만 달러(약 3억 6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가장 큰 금덩어리는 플라트이 트레우골니크(골드 트라이앵글)다. 무게는 약 36kg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덩어리는 1872년 호주에서 발견된 '홀터맨 금괴'로 알려져 있다. 무게가 83kg이다.

/이히얼 네바예츠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수족관 월드컵도 후끈 22일 일본 요코하마의 해양 테마파크에서 열린 '수족관 월드컵'에서 물고기 떼가 공을 차지하기 위해 벌려들고 있다. 축구공 모양의 물체에는 미끼가 들어 있다. /AFP 연합뉴스

ISIL 서부 요충지 3곳 장악

이라크 하디타댐 위협… 오바마 종파 대립 해소 촉구

수니파 무장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가 파죽지세로 이라크를 장악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SIL은 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확대, 안바르주의 전략적 요충지 3곳을 추가로 손에 넣었다.

특히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하디타 지역을 ISIL이 장악하면서 하디타댐이 위험해졌다. 1986년에 지어진 이 댐은 1000MW의 전력을 생산한다. 댐이 파괴될 경우 이라크의 전체 전력망에 영향을 주고 홍수도 일으킬 수 있다.

이라크 정부군은 ISIL의 댐 공격에 대비해 2000명 이상의 병력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안바르주는 이라크에서 가장 큰 주로 바그다드 서쪽 끝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요르단, 북쪽으로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올해 초 ISIL은 주도인 라마디 일부 지역과 팔루자를 장악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내부에서 종파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지도자들이 종파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의 화력도 이라크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군을 돕기 위해 최대 300명의 군 자문관을 보내겠다"면서도 "이라크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1968.07 (-23.96)	코스닥	538.69 (-0.10)
금리	2.66 (-0.02)	환율	1021.50 (+3.50)

세계 최초 '케이블UHD' 시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함께 23~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케이블 초고화질(UHD) 상용서비스'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첫날인 23일 진행되는 시연행사 개막식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국회 미방위 위원들을 비롯해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케이블업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세계 최초로 UHD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시연행사는 케이블UHD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방송분야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해령 기자

지방은행, 몸집 키우기 나섰다

지역한계 극복위해 연수합병·자점확장 나서
부산은행·전북은행, 광주·서울 영업소 개설

지방은행들이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지점 확장 등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지방은행들은 본토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세우는 등 지역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M&A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펼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7월 광주에 영업부를 신설할 부산은행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첫 점포를 개설하는 부산은행의 이번 진출은 BS금융지주의 향방을 보여주는 조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토 은행인 광주은행과 JB금융지주와의 경쟁 사이에서 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부산은행의 성공 여부는 지방은행의 전국 영업망 구축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물론 지방은행의 지점 확대와 다각화 행보는 비단 부산은행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전북은행은 서울 반포에 지점을 개설하며 수도권에만 14번째 문을 열었다. 지방은행들의 서울 점포 수는 현재 31개에 달한다.

DGB금융그룹 또한 KDB생명과 현대자산운용 등 비은행권 금융사 인수전에 나서면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DGB금융은 20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KDB생명보험 인수와 관련해서는 예비 실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3월 취임한 박인규 DGB금융 회장은 "전국 영업망을 보유한 자산운용·보험·증권 등 자회사를 확충하겠다"며 "은행의 동남권 성장전략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자산 규모 80조의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그룹의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역시 JB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로 인수 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지방금융지주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방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저금리 저수익으로 은행권 전반이 수익 악화에 부딪힌 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창출과 성장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비춰진다.

일각에서는 외형 확대에 따른 건전성 문제와 지역 기반의 한계를 극복할 지변화 여부 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일단 지방은행의 전망을 밝게 점치고 있다. /박미란 기자 alva0208@metroseoul.co.kr

"브라질 월드컵 우리가 책임진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보스니아 대 나이지리아 전이 열린 22일 오전 8시, KT 광화문지사 7층 국제통신운용센터에서 KT직원들이 브라질 현지 경기화면을 금종각 방송 3사로 전송하며 이상유무를 점검 하고 있다. /KT 제공

삼성, 공채 합격자 입사교육 '스타트'

삼성그룹이 공채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사 교육을 시작하면서 합격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 16일 상반기 대졸 공채와 대학생 인턴 합격자를 발표한 후 계열사별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다.

삼성그룹 상반기 대졸 공채 합격자의 85%는 이공계였다.

23일 삼성전자 대학생 인턴 연수 교육을 앞둔 A대학 전자공학과 졸업반 박모(25)씨는 "직무역량 면접 준비를 위해 전자 이론과 최근 상식 위주로 준비했다"며 "세가지 문제를 제시받은 후 하나를 택해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이었는데 까다롭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한 지원자는 "나처럼 85%에 들지 못한 이공계도 있다"면서 "지인들을 보면 이공계라 해도 전자공학과 기계공학 전공자가 많아 선발되는 것 같다. 이공계 지원자 어학 점수와 학점도 상향 평준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에 합격한 신소재공학 전공자는 "학점은 3.9였고 기업에서 품질경영이 중요해질 것 같아 품질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다만 반도체 지식이 부족해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미 기자 unique@

통신 속도 진보에 휴대폰 제조사 '끙끙'

새 서비스 이용하려면 단말기 교체? 고객 불만↑

최근 휴대전화 제조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속도 경쟁으로 인해 단말기의 교체 속도도 더 빨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에 적용된 기술이 갈수록 빨라지는 통신서비스 지원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직면한 것.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9일 광대역 LTE-A 서비스 상용화 개시와 함께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 출시를 발표했다. 사실 이통3사는 모두 광대역 LTE-A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아 서비스 상용화에 나서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최대 225Mbps의 광대역 LTE-A 속도를 지원하는 퀄컴 스냅드래곤 805 AP를 장착한 '갤럭시S5 광대역 LTE-A'를 개발하자 단말기 수급에 먼저 성공한 SK텔레콤이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서비스 상용화에 나섰다. 단말기 확보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SK텔레콤에 안길 수 있었던 요인이 된 것이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늦었지만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단말기 제조사의 역할이 이통사의 속도 경쟁에도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갈수록 빨라지는 통신서비스로 인해 제조사의 부담 역시 커졌다고 말한다. 이용자들이 새로운 통신서비스 지원 단말을 기다리다 결국 신제품의 판매율 역시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광대역 LTE-A 서비스 상용화로 인해 LG전자는 G3 출시 한달 여만에 G3 광대역 LTE-A 제품의 7월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G3를 구매한 고객의 불만도 늘어지고 있다. 신제품을 구입한 지 한달 여만에 구형 단말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김세정 기자 ksj0430@

로또복권 제603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13	25	26	27	43	2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3,452,136,563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76,714,146
3등	5개 숫자 일치	1,608,50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국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61~3
독자센터	02)721-9855

증권가는 지금 '칼바람'

수익악화로 사원급까지 희망퇴직 받아 전체 증권사 61곳 직원 수 3723명 줄어

올 들어 증권업계가 수익 악화로 고전하면서 개별사마다 수백명씩 희망퇴직하는 등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임원·부장급 등은 물론, 30대 대리·사원급까지 퇴사하는 곳이 생겼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 61곳의 직원 수는 3만9079명으로, 지난 2012년 말과 비교해 3723명이나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에는 대신증권이 저유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난 16일 302명의 희망퇴직 명단을 결정했다.

지난 달에는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을 앞두고 각각 412명, 196명이 희망퇴직했다. 하나대투증권에서는 145명이 역시 희망퇴직으로 회사 문을 나섰다.

지난해 말 한화투자증권(300명)을 필두로 올 들어 1월 동양증권(650명), 4월 삼성증권(300명)에서 단행한 희망퇴직이 점차 전 증권업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사원·대리급도 희망퇴직 명단에 포함돼 있어 안 그래도 위축된 여의도 증권가가 더 움츠러들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됐다"며 "대리급 이하의 젊은 직원들 역시 더 안정적인 업종을 찾거나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이유로 꽤 신청했다"고 말했다.

업황 불황이 계속되면서 남아있는 직원들도 좌불안석인 것은 마찬가지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할까 고민하다가 하지 않았다"며 "일단 이번 희망퇴직은 지나갔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내며 최악의 실적 쇼크를 겪은 증권사들은 인력 구조조정과 지점 축소 등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증시 거래 부진으로 기존 브로커리지(위탁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익이 급감한 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증권사들은 실적 개선을 위해 브로커리지 의존도를 낮추고 업계간 인수 합병(M&A), 자산관리(WM)와 투자은행(IB) 업무 강화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팔을 걷어붙였으나 녹록지 않다.

이렇다 내놓을 만한 자산관리 금융상품 수가 턱 없이 부족한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 등 걸림돌이 많다.

종전 브로커리지 수익을 회복할 만한 새로운 거래 채널도 모색하고 있으나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증권사 관계자는 "향후 본격화될 '카톡증권'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브로커리지로 먹고 사는 회사의 경우 수수료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금융상품도 '패키지 시대'

통장·적금·체크카드 결합 '원스톱' 상품도

주요 시중은행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한데 묶은 '패키지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은행의 경영 철학이 담긴 상품을 통해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바보의 나눔'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통장·적금·체크카드를 결합한 금융상품 시리즈를 선보였다.

'바보의 나눔' 시리즈는 '바보의 나눔 통장', '바보의 나눔 적금', '바보의 나눔 체크카드'로 구성돼 가입좌수당 100원의 기부금을 하나은행에서 자체 출연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기부하며 기부금은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돕는 공익 사업에 사용된다.

이 상품의 특징은 공익성을 강조하는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나눔의 철학을 금융에 접목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의 '우리평생파트너 상품 패키지'는 은퇴 자금 마련부터 실제 운용까지 도와주는 맞춤형 상품이다. 입출식 통장인 '우리평생파트너'에 '우리평생파트너 적금'과 '우리평생파트너 예금'을 결합한 상품 패키지다.

'우리평생파트너통장'은 직장인부터 연금을 받는 은퇴자까지 평생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급여나 연금 이체 시 매월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2.0% 금리를 적용 받는다.

'우리평생파트너 적금'은 월 300만원 내에서 만기를 1~2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기형과 3년인 장기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장기형은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장 9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외환은행이 선보인 '원고패키지'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과 체크카드를 결합한 묶음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8~30세 개인고객이다. '원고 통장'과 '원고 체크카드' 발급 고객 중 전달의 카드 사용이 10만원 이상이면 통장을 이용한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외환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수수료(월 5회) 면제 등이 있다.

/김민지기자 minj@

SK플래닛 런처플래닛 200만 다운로드 SK플래닛의 초기 화면 꾸미기 앱 '런처플래닛'이 200만 다운로드 돌파를 기념해 아이패드 미니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를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 /SK플래닛 제공

문화 품은 아파트… '내집 고르기' 변수

단지 인근에 스포츠단지·커뮤니티센터 등 조성 역세권·학군·상권 이어 여유생활 즐기기 관심

빡빡한 일상에 지쳐 생활의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여가·문화시설 인근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가·문화시설과 접근성이 내 집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요자들이 역세권, 학군, 상권 등의 입지만 고려했지만 여유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문화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어메니티도시인 세종시는 행정·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지역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서 분양 중인 '수원 아너스빌위즈'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약 2만5000석 규모의 KT위즈 프로야구팀 홈경기장이 바로 인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2020년까지 인근을 복합스포츠문화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모습이다.

반도건설이 세종시 1-4생활권 H1블록에 오는 27일 분양할 '세종 반도유보라'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접한 입지를 내세웠다. 단지 내 상가인 '카림 애비뉴'는 세종시 최초로 230m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되고,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 특유의 감각적이고 실용성을 더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서 선보인 '송도 아트윈푸르지오'는 계획 단계서부터 인천아트센터 복합단지로 설계된 곳으로 홍보가 됐다. 부지 바로 옆으로 4만907㎡ 규모의 문화단지가 건설되며 이곳에는 클래식전용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현대미술관이 조성된다. 단지 동쪽으로는 약 41만㎡ 크기의 센트럴파크도 펼쳐진다.

/박선옥기자 pso8820@

3분기 BSI, 1분기만에 하락

전분기 比 8p↓ 내수부진·환율 하락 원인

기업의 체감경기가 1분기만에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경기 부진과 환율하락이 원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247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전망치가 전분기보다 8포인트 떨어진 '103'으로 집계됐다.

2011년 4분기 이후 줄곧 기준치(100)를 밑돌았던 BSI는 올해 2분기 큰 폭으로 상승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최근 내수부진과 환율하락에 대한 우려로 1분기만에 다시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자체 분위기와 여행·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어려움으로 전반적 경제 심리가 위축된 면이 있다"며 "단 기업은 하반기 들어 세월호 사고의 경제적 충격이 점차 해소되고, 세계경기도 미약하나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고 해석했다.

대기업의 전망치가 2분기 113에서 102로 하락했고, 중소기업도 111에서 103으로 낮아졌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전분기보다 하락하며 각각 105, 102를 기록했다.

기업은 3분기 기업경영 애로요인으로는 '내수 및 수출 등 수요부진'(41.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자금난'(19.4%), '환율불안'(17.1%), '인력난'(14.6%) 등을 지적했다.

/양태균기자 ktyang@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추이

전체지수: 96, 77, 99, 86, 74, 69, 99, 97, 94, 91, 111, 103

수출지수: 81, 80, 73, 67, 57, 65, 78, 77, 77, 74, 86

월드컵 열풍, 브라질 투자로

금융가 사람들

■ 문남중 대신경제연구원

삼바축구의 본 고장이자 역대 최다 월드컵 우승국인 브라질에서 열리는 축구 축제에 전 세계 축구팬의 눈과 귀가 쏠린다.

한국이 첫 상대인 러시아와 무승부를 하는 예상 밖 선전을 펼치자 월드컵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월드컵과 같은 커다란 국제 행사는 주최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브라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다.

호쾌하게 골문 안으로 적중하는 브라주카(브라질 월드컵 공인구)처럼 브라질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문남중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사진)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브라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이어 "총 자산 규모와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 상장한 브라질 ETF 13종 중에서 '아이셰어 MSCI 브라질 캡트 E'를 눈여겨 볼 만하다"며 "이 상품은 은행·석유가스·재료·제강 중심으로 구성된 MSCI 기초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관련 업종이 좋아지면 함께 수익률이 오르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브라질 경제가 월드컵 이후 재도약할지, 아니면 부진을 지속할지에 예의주시한다.

시장에서는 브라질이 이번 월드컵과 오는 2016년 올림픽 개최의 후광으로 향후 경제성장세가 양호할 것이란 기대감이 일었다.

반면 브라질 내부에서는 일회성 국제 행사에 대한 투자보다 구조적 개혁과 민생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사회 여론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 연구원은 "브라질 월드컵 이후 오는 10월 예정된 대선 정국에 주목해야 한다"며 "월드컵 개막 직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시위와 파업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드컵 이후 대선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브라질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인기를 끌었으나 큰 손실을 안긴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한 관심도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문 연구원은 "지난 2011~2012년 브라질 국채 투자자들은 손실 구간에 있었다"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자자들은 소폭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향후 금리와 헤알화 흐름으로 볼 때 투자시점상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대포통장·대포폰 대처법은?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거래지급 정지·해지요청 등 조치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포자량 사기 대응법입니다.

최근 취업이나 대출 등을 빌미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무심코 넘겼다가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카페 등의 경로를 통해 통장(카드)을 양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절대 응대하면 안 됩니다.

취득한 통장(카드)으로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장 명의자 역시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되면 곧바로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와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 몰래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지 불안하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시이트(www.msafer.or.kr)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은 명의자 모르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명의도용 시전차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포자량도 주의 대상입니다. 대포자량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실소유주가 떠 안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포자량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교통행정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금감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상담전화 1332의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금감원은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걸면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를 상담해주는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32 민원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시행되는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1332kongmo@fss.or.kr)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입니다.

대상 1명은 50만원, 우수상 2명은 30만원, 장려상 3명은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정리=박원정기자 [email]@metroseoul.co.kr

"보양식 먹고 힘차게 응원 하세요" 신세계백화점이 한국축구의 선전을 기원하며 새벽에 응원하는 붉은 악마를 위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 수산코너에서 다양한 보양식 재료를 내놓았다. /연합뉴스

5월 전월세 거래 전년比 4.7% 증가

5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2만834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4.7% 증가했으며, 전월대비로는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이 같은 내용의 지난 5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했다.

2014년 5월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해 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전세거래는 감소(△0.7%)한 반면, 월세 거래의 증가(+13.4%)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만1774건이 거래되어 지난해 동월대비 4.5% 증가했고, 지방은 3만9060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5.1%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해 동월대비 5.6% 증가, 강남3구는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동월대비 2.9% 증가(5만3061건), 아파트 외 주택은 6.2% 증가(6만7773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주택은 전세 58.7%(7만935건), 월세 41.3%(4만9899건), 아파트는 전세 65.9%(3만4984건), 월세 34.1%(1만8077건)로 나타나 월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무리한 자동차 구입… 건전 재무 '구멍'

김연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동차를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가용을 유지하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영업직이어서 자동차를 갖고 움직여야 하거나 사업을 위해 꼭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달에 1000km, 1년에 1만km 뛰는 데 불과한 자동차를 캐피탈회사의 빚으로 유지하는 신청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새 차를 사면 즉시 가격이 하락한다. 바로 중고차 시장에 내다팔아도 몇 백만원의 손해를 볼 정도다. 1년이 지나면 쑥쑥 가격이 내려간다.

차를 전혀 쓰지 않고 가만히 세워놔도 세금이 나간다. 평생 의사인 이근후 박사는 자동차를 사본 적이 없고 움직일 일이 있으면 택시를 탄다고 했다. 어느 외제사는 일단 개인적으로 튼튼한 재무설계를 하려면 자동차를 무리하게 사지 말라고 조언한다.

개인회생 신청인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캐피탈회사의 빚을 얻어서까지 자동차를 사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쇼핑을 하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시장이나 대형할인마트에서 집이 멀리 있어서다. 한국의 도시 설계 문제 탓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집을 구할 때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또 어린 자녀가 있거나 중고등학교에 멀리 통학을 시켜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자동차를 유지하는 비용과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의 불편함을 냉정하게 저울질해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빚을 얻어 차를 샀다가 압류당하는 고통을 겪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www.lawchoice.kr

캐딜락 뉴 CTS, BMW 5시리즈 누를까?

캐딜락 뉴 CTS는 강력한 엔진을 얹었으나 핸들링이 불안하다

대시보드는 좋은 질감과 디자인이 눈에 띈다

뒷좌석은 경쟁 차종보다 좁다

시승기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세그먼트는 중형 세단이다. 이 치열한 시장에서 BMW 5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렉서스 GS, 인피니티 Q70, 링컨 MKS, 재규어 XF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독일차가 사실상 독주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캐딜락이 최근 뉴 CTS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시장에는 지난번 부산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였고, 20일 인천 하얏트 리젠시호텔에서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시승회를 열며 성능을 공개했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 만난 GM코리아 장재준 대표는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와 견주어 성능면에서 월등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물론 GM코리아는 지난번 ATS 발표 때도 고성능을 앞세워 BMW 3시리즈, 벤츠 C클래스를 꺾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캐딜락 ATS는 올해 5개월 동안 29대가 판매됐는데 한 달에 1대만 판매된 적도 있다.

뉴 CTS는 이번이 3세대 모델이다. 전작인 2세대 모델의 포지셔닝이 BMW 3시리즈와 5시리즈 사이에서 어중간했던 데 비해 3세대 모델은 사이즈를 키워 5시리즈를 정조준했다. 사람에 따라 호불호(好不好)가 갈리는 외모지만 세련된 감각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날렵한 헤드램프와 세로형 주간주행등은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다. 차체 길이는 구형보다 120mm 길어졌고 높이가 2mm 낮아져 시각적인 안정감이 좋아졌다.

휠베이스(앞뒤 차축간 거리)는 2910mm로 BMW 5시리즈(2968mm)보다 짧고 벤츠 E클래스(2875mm)보다는 길다. 그러나 실내공간은 경쟁 차종 중 가장 좁다. 뉴 CTS는 차체의 무게 배분 때문에 엔진이 일반적인 위치보다 뒤쪽으로 배치돼 있다. 엔진이 뒤로 가면 실내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휠베이스에 비해 실내를 넓게 쓸 수가 없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쓰인 소재는 매우 고급스럽고 마무리도 좋다. 독창적인 CUE(Cadillac User Experience)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보기 좋고 첨단 감각이 돋보이는 반면, 모든 게 터치로 조작되기 때문에 스위치 방식에 비해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

뉴 CTS는 미국에서 3가지 엔진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2.0 가솔린 터보 한 종류만 판매된다. 최고출력 276마력과 최대토크 40.7kg.m는 수치 면에서 동급 최강이다. 특히 동급에서 출력이 가장 낮은 벤츠 E200에 비해서는 무려 92마력이나 높다. 3000~4500rpm에서 발휘되는 최대토크는 고속주행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강인한 인상을 남긴다. 문제는 엔진성능을 서스펜션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렁이 심한 서스펜션은 동승석에서도 불안감을 느낄 정도. 더블 레인 체인지(차선을 바꿨다가 되돌아오는 것)를 해보면 차체가 좌우로 심하게 쏠리기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 없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MRC, 4륜구동 모델에만 장착)이 없는 CTS는 핸들링이 너무 불안하다.

이 차의 연비는 도심 8.5km/ℓ, 고속도로 12.5km/ℓ, 복합 10.0km/ℓ다. 같은 배기량의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보다 열세일 뿐 아니라, 독일 라이벌에 있는 디젤 모델이 뉴 CTS에는 없다. 가격은 5450만~6400만원으로 독일 경쟁자보다는 약간 저렴하다.

뉴 CTS는 미국 <모터트렌드>가 선정한 '2014 올해의 자동차'에 뽑혔다. 이는 3.6 고성능 모델이 받지준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뉴 CTS가 독일 디젤 세단을 누르려면 가솔린 2.0 엔진 한 가지로는 부족하다. GM코리아 장재준 대표는 이날 시승회에서 "향후 디젤 모델이 추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디젤 모델이 추가되기 전까지 뉴 CTS가 소비자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정익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페라리, GTE 프로 클래스 우승

페라리가 '458 이탈리아'로 르망 24시간 레이스 GTE 프로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페라리 458 이탈리아는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차로 트랙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다. 강력한 V8 직분사 엔진은 9000rpm에서 570마력을 발휘하고, 최고시속 325km, 정지 상태에서 3.4초 만에 시속 100km/h까지 가속된다. 또한 날카로운 코너링과 주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뛰어난 승차감과 내구성을 제공한다.

권위 있는 내구 레이스로 꼽히는 르망 24시간 레이스는 크게 르망 전용 경주차로 출전하는 LMP(Le Mans Prototype)와 기존 양산 차량을 개조해 출전하는 GTE(Grand Touring Endurance)로 나뉘며, 특히 GTE는 프로와 아마추어 클래스로 나뉜다. 페라리는 이번에 GTE 프로 클래스에서 경기를 펼쳤으며, 현재까지 클래스 우승 24회를 비롯해 종합 우승 9회를 기록한 바 있다.

이로써 페라리는 통산 24번째 클래스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정익기자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뉴모닝	570	630	650	-	
쉐보레	스파크	-	640	720	780	890
현대	아반떼 MD	-	1,220	1,290	1,370	1,460
기아	포르테	870	940	1,050	1,150	1,210
	K5	-	1,390	1,470	1,750	1,820
현대	YF쏘나타	1,330	1,490	1,670	1,750	1,850
르노삼성	올뉴SM7		1,500	2,120	2,220	2,640
현대	그랜저 HG	-		2,170	2,380	2,740
	싼타페 CM	1,580	1,720	1,820	2,180	-
BMW	5시리즈	2,560	2,740	3,280	3,570	3,830
아우디	뉴A4	2,360	2,520	2,650	3,230	3,71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페라리 팀이 르망 24시간 레이스 GTE 프로 클래스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역 일대에 설치한 미디어 폴

현대차, '미디어 폴'로 월드컵 띄우기

현대자동차가 다양한 형태의 '월드컵 마케팅'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대차는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강남대로 약 760m 구간에 22개 미디어 폴과 44개의 대형 월드컵 조형물을 설치해 월드컵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미디어 폴은 도로의 모든 표지판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한 거리시설물을 말한다. 이 미디어 폴은 7월 9일까지 운영된다.

현대차는 글, 사진, 영상 등의 응원 메시지를 현대차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면 대표팀의 브라질 현지 베이스캠프와 숙소에 설치된 4개의 대형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온라인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이벤트도 열고 있다. 또한 알제리전, 벨기에전이 열릴 때 서울 영동대로 일대, 울산 월드컵경기장 호반광장, 인천 송도 도심 서킷에 '현대 팬 파크'를 설치하고 길거리 응원전을 진행한다.

제47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The 47th Week of Safety & Health

2014. 7. 7(월) ~ 7. 13(일)
서울, COEX

안전보건, 행복을 잇는 띠

▶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장소 : COEX 그랜드볼룸 (1층)

▶ 안전연극 공연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장소 : COEX 401호

▶ 제32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14)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 7월 10일(목)
장소 : COEX Hall A(1층)

▶ 안전보건 UCC SHOW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 7월 10일(목)
장소 : 국제안전보건전시회(COEX 1층 A홀) 내 안전보건공단 홍보관

▶ 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 7월 11일(금)
장소 : COEX 컨퍼런스 룸(3, 4층)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행사
일시 : 2014년 7월 12일(토) ~ 7월 13일(일)
장소 : 한국잡월드 야외 행사장

▶ 지역별 행사
대구 6월 17일(화) / EXCO
광주 6월 24일(화) / 김대중 컨벤션센터
대전 6월 24일(화) / 호텔 리베라 유성
부산 6월 24일(화) / BEXCO 컨벤션홀

www.kosha.or.kr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카페에서 개인정보 털리지 않는 방법

뉴스룸에서
박성훈
<경제 산업차장>

카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가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이 되고 있다.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할 때 이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해커가 만들어 놓은 가짜 웹 사이트에 자신도 모르게 접속해 웹서핑을 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웹사이트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번호와 패스워드 등이 유출될 수 있다.

와이파이로 접속하면 어떤 사이트들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런 무선랜 접속과 관련된 개인정보노출 빈도가 나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3배 빠른 와이파이를 넘어서 2020년 상용화 예정인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이르면 지금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대 1000배 빨라진다. 800M 용량의 영화를 1초면 내려받을 수 있다.

즉 해커들이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나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보 취득 시간도 점점 짧아질 것이다. 스마트기기 사용자들의 순간적인 실수가 자신의 모든 정보를 까발리는 행위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사물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되면 재앙 수준의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앱이 있다고 하자. (초기 형태의 앱은 이미 나왔다) 스마트폰에 말을 하면 차가 명령을 듣고 목적지까지 최단시간의 코스도 알려준다.

그런데 만약 해커가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면 차의 행선지나 운전 정보는 물론 함께 탑승한 사람의 얼굴과 음성 확인, 대화 내용 도청 등이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차의 목적지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자동차 주행을 방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무선랜 접속을 자제하고 수상한 주소를 지닌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자정노력이 있다.

최선책은 스마트기기의 남용을 줄이는 것이다.

해커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의 이기는 양날의 검과 같다. 스마트폰도 예외는 아니다.

진보 교육감들 정치적 중립부터 선언해야

청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 시도광역단체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석권해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전국 17곳 가운데 절대다수인 13곳이 전교조 출신을 비롯해 진보성향의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체의 84%에 해당되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진보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탄원서까지 내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취소'를 제기했으나 지난주 19일에 열린 서울행정법원에서 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교육계가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패소 판결 후 전교조 지도부는 단식농성 등 총력 투쟁을 이미 선언했다.

이제부터 진보세력의 교육감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이들의 손을 계속 잡아준다면 교육현장은 유례없는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의 리더십은 지난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만일 계속해서 소수의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 지지해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 된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당선된 것은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갈라진 점도 있지만 현재의 교육환경에 대해 불만도 표심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득표율은 33.9%에 불과하다. 결국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유권자는 전교조를 미덥지 않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전교조 출범 25년만의 대승이라고 자축에만 젖어있을 때가 아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먼저 이념투쟁을 종식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 촉면(?)에 따라 '이명박 정권 때는 쥐약'이라고 폄하하면서 조롱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 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흔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전교조=진보=좌편향=종북'과 같은 등식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김일성 주모제'는 고사하고 '참지신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교조의 종북 활동은 이제 거의 고의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 바람에 학부모는 물론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노선이 정리돼야 '참 교육' 실천에 믿음이 간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내세우는 참교육 내용도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면 수정해야 옳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내세워 교권이 무너지고 인성교육이 퇴보하고 있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다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올바른 역사교육의 실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등장이 신선해진다.

포토프리즘 시장도 응급 소생 훈련

20일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실시된 서울광장 민방위훈련장에서 관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고 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등 대형 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대형 사고의 최지 대비 훈련에 초점을 맞춰 실제처럼 진행됐다. /손진영기자 son@

고노 담화 '꼼수' 강력 대응

기자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일본 정부가 20일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더니 '검증'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다.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문서다. 그러나 극우파의 '대부'인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는 이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연장하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머리를 썼다. 표면적으로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증 절차를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 정부는 보고서에서 한일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발표한 문서를 각색, 양국 간 교섭의 산물로 둔갑시켜서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고노 전 장관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사실이다. 담화는 사실 그대로이며 모든 게 올바르게 쓰여있다"며 아베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비공개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정부가 이번 '도발'을 통해 노리는 것은 뻔하다. 전쟁 범죄로 얼룩져 지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우익 지지 세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위안부 피해자들은 검증 보고서로 인해 또다시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한국은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응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공'도 필요하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영원히 고립된 섬나라다.

거대한 뿌리를 다시 돌아보며

인문의 산책
김인용
<성균관대 교수>

"독립을 외쳐봐야 부질없다. 법을 모르는 이상 약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설령 독립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이득을 볼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윤치호의 일기에 나오는 글귀들이다. 당대 최고 지식인이자 감리교 원로였던 윤치호는 학식, 재력, 명망을 모두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독립운동 무용론을 내세운다.

물론 독립의 가능성까지 포기하진 않았다. "일본인은 조선인의 독립의망을 꺾고자 할 때 조선이 역사상 한 번도 독립국이었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서 조선인을 극도로 격분케 만들곤 한다. 그 주장이 맞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곧 조선은 결코 독립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본인은 지난 2000년 동안 게다를 신어왔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절대로 구두를 신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뛰어난 반론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국 친일협력자로 전락하고 만다. 담장은 힘이 없으니 훗날을 도모하자면서 교육에 매진했으나, 기본적으로 윤치호는 현실의 정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 기회주의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늘 상 말했다. "물 수 없다면 짖지도 마라." 때를 기다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나마 있던 이빨마저 뽑히고 말았다.

그가 뼛속 같이 친일파였던 것은 아니었다. 3·1 운동이 어처구니없이 진압되는 것을 보고 그는 끝없는 비통함을 느꼈다. 그러나 "우선 일본인에게 호감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억울한 희생을 피자는 논리였고, 아예가 가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건 독립의지를 소멸시키는 쪽으로 기어졌다. 일본처럼 실력을 양성하자고 했으나 독립의지가 없는 조선인들의 실력이란 일제의 도구가 될 뿐인 것은 불보듯 것이다. 그 자신도 마침내 그런 도구가 되고 말았다. 도대체 그 실력이란 그럼 뭔가?? 천재적인 인물이 그렇게 허무하게 낭비되었다.

시인 김수영은 그의 시 "거대한 뿌리"에서 근대화의 대단한 성과물로 내세워진 당시로는 웅장했던 제3한강교 철근기둥 조차도 우리 역사의 전통에 비하면 "좀 벌레의 솜털"이라고 일갈한다.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 연장선에 있는 박정희 식 산업화의 자랑을 단번에 묵살해버린 것이다. 자기 역사의 정신적 뿌리에 담긴 깊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제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결국 길을 잘못 들어서고 만다. 한 나라의 운명도 다르지 않다.

인대질환, 관절염 및 건초염 등 10여분이면 치료 끝!!

진화하는 신개념 인대 및 관절 DNA 주사

유명 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우측 팔꿈치 내측 건초염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제와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자꾸 통증이 생겨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을 고민하던 S씨는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결국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자 S양과 같은 방송에 출연 중인 가수 K씨와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방문했다.

담당 주치의인 김상욱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 원장은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으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진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를 통해 S씨를 치료했다. 또 부종 감소와 염증 치료를 위해 인대치료 주사도 병행했다. 치료 후 S씨의 상태와 통증은 호전됐다.

이처럼 3년 전부터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처음 시행해 이름이 알려진 인대 신경 치료는 기존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이다.

일반적인 인대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질환, 신경-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다. 또 인대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으며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S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의 핵심 치료인 도수운동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와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치료를 주 2회씩 1개월 받았다. 현재 S씨는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 맞춤형 치료 시스템 갖춰

이외 많게 수많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는 척추관절 치료병원으로 자리 잡은 강남초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또 주사 치료 후에는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의 나이 증상에 따른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선진 계획화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본원 외에 여의도역과 홍대입구역 합정역에 직장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목, 허리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 다리, 측만증 등) 전문치료클리닉을 개설했다. 3차원 생역학 디스크와 관절치료 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재생센터를 설립해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1800-38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월드컵 '응원주(酒)' 주목

믹싱해도 좋은 버니니와 아그와 출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전에서 아까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오전 7시 열린 경기였지만 많은 국민이 광화문을 비롯해 영동대로 등에서 밤샘 응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예선 경기의 응원전에는 반드시 참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가정에서 휴파티 형식의 응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집에서 밤새워 세계경기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빠질 수 없는 '월드컵 응원주'를 소개한다.

275㎖ 적당한 사이즈와 5% 알코올 농도를 가진 버니니는 월드컵과 같은 대형 행사에 빠질 수 없는 단골 응원주다. 깔끔하고 프레시하면서도 달콤함이 느껴지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평소 독한 술을 즐기지 못하는 이들도 쉽게 마실 수 있다. 국내에서는 로제 와인 버전인 '블러쉬(Blush)'와 모스카토 와인 버전인 '클래식(Classic)'이 판매되고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

초저녁부터 다음날까지 응원전을 계획할 때 추천하는 응원주는 '아그와'(사진)다. 프리미엄 코카잎 허브 리큐르 아그와를 에너지 드링크와 섞어 마시면 밤새워 응원을 하더라도 파티 분위기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다. 해발 2000m의 안데스 산맥에서 재취한 코카잎은 주 원료로 36가지의 허브와 블렌딩 된 특유의 향으로 스트레이트 샷으로 마셔도 좋다. 에너지 드링크가 없다면 콜라와 믹싱해 즐길 수 있다. /이정필기자 ems@

소비자 유혹하는 브랜드송

청각 마케팅 통해 제품 인지도 높여

최근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나 신제품 등의 마케팅을 위해 브랜드송을 제작해 발표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보다 친근감 있는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고 동시에 재미있게 브랜드·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바디케어 브랜드 바디판타지(사진)는 최근 국내 판매 17만 개 돌파를 기념해 인디밴드 보코베리가 참여한 브랜드송 'One! Two! Three! 바디판타지'와 뮤직비디오를 발표했다. 바디판타지의 달콤한 향을 모티브로 사랑에 빠진 여인의 고백을 밝은 멜로디로 표현한 곡이다. 위트 넘치는 가사와 보코베리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바디판타지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했다.

던킨도너츠는 지난해 국내 론칭 20주년을 맞아 제시한 'Eat & Drink All day Dunkin' 콘셉트의 일환으로 가수 윤하와 함께한 브랜드송 'All-day Every day'를 최근 선보였다. 이 노래는 언제나 던킨의 다양한 메뉴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와 윤하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 래퍼 칸토의 리드미컬한 랩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브랜드송의 제작 과정에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 인디펜던트리쿼코리아는 2NE1의 씨엘이 직접 작사·작곡한 'KGB 브랜드송'을 함께 부를 듀엣 상대를 공모하는 'KGB 콜라보레이션 캠페인'을 벌였다. 온라인 오디션을 통해 씨엘이 직접 선정한 최종 1인은 씨엘의 듀엣 파트너로 브랜드송을 함께 부르는 것은 물론 KGB 광고에까지 함께 출연했다.

사내 기업문화를 잘 융해 브랜드송을 제작하면서 회사 서비스를 홍보하기도 한다. 아이패밀리는 김태욱 대표가 직접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브랜드송 '아이패밀리'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임직원들이 직접 작사·작곡, 편곡, 뮤직비디오 제작까지 했다. 뮤직비디오는 프로포즈와 결혼에서부터 신혼여행, 돌잔치까지 아이패밀리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의 내용을 5분에 걸쳐 담았다. 전문 배우가 아닌 200여 명의 임직원 전원이 출연해 개성 넘치는 장면과 소품 하나하나까지 직접 만들었다. /정혜인기자 hijune6404@metroseoul.co.kr

'쿨 섬머 패키지' 선보인다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 7월부터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실속 있는 가격과 혜택을 제공하는 '쿨 섬머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프리미어 룸'과 '디럭스 룸' 기준의 두 가지 구성으로 출시됐다.

프리미어 룸 1박 패키지(14만5000원)는 5만원 추가 시 주니어 스위트 룸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디럭스 룸 1박 패키지(21만9000원)는 3박 투숙 시 1박을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이 있다.

또 두 가지 패키지 모두 모모카페 2인 조식 뷔페와 모모바 하이네켄 생맥주 2잔이 제공되며 피트니스 센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31)8060-2222 /황재용기자

'휴전선 155마일 횡단' 대원 모집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의 포카리스웨트가 '제20회 휴전선 155마일 횡단'에 참가할 국내 중·고등학생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

동아오츠카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하는 '휴전선 155마일 횡단'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국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1호 프로그램이다.

이번 횡단은 '내가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평화통일 의식을 배양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자신감과 진취적인 사고를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사전 훈련과 발대식, 도보 행진(155마일, 249㎞)과 군부대 체험 활동, 통일 결의식 등이 계획돼 있다.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편지 쓰기 등을 통한 봉사증이 발급된 페이지는 곧 발표할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월드컵 경기 편하게 보세요"

도심 명품호텔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월드컵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월드컵 기간 동안 더 신나게 월드컵 열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명품호텔들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먼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비바 원더아워'를 진행한다. '맛으로 느끼는 축구 열기'라는 주제로 브라질 등 남미 국가의 음식과 와인, 칵테일이 준비되며 월드컵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형 축구공과 다양한 소품들이 배치된다.

또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도심 속 야외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월드컵을 만끽할 수 있는 'Viva 브라질리언 바비큐 파티'를 마련했으며 그랜드 힐튼 서울은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이는 '싸커 피버 이벤트'를 개최한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의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라구뜨에서는 '리틴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더 플라자(사진)는 서울 광장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뷔페 세븐 스퀘어에서 '브라질 월드컵 스페셜 코너'를 런치와 디너 타임에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강남 명동에서는 브라질 전통 보양식인 슈라스코와 함께 박지성 와인 1잔을 무료로 맛볼 수 있다. 앰배서더 호텔 그룹은 오는 27일 호텔 홈페이지에서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160개의 객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월드컵 이벤트 'Go for 16'을 실시한다.

아울러 리츠칼튼 서울은 옥산 뷔페에서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고 렛츠'' 이벤트를,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지하과 응원도구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 '이스타 블 코리아' 패키지를 준비했다.

롯데호텔서울 역시 야외 테라스에 위치한 플라스 프라자에서 '코리아 더 챔피언 세트'를 판매하며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는 브라질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비바! 브라질' 패키지를 만날 수 있다.

The-K호텔서울은 뷔페레스토랑 더 파크에서 10종의 브라질 건강요리를 선보이는 '2014 브라질 푸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서울팰리스호텔의 뷔페&카페 레스토랑 스톤플레이트에서는 '브라질 삼바&BBQ 페스타' 이벤트가 이어진다. /황재용기자 hsoul38@

냉감 소재 옷 세탁은 이렇게…

마 – 중성세제 손빨래, 사라쿨 – 드라이클리닝

냉감소재의 여름옷은 아무리 기능성이 뛰어나도 세탁이 잘못돼 한 두 해 입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의류 브랜드 윌메이드의 관계자는 최근에 나오는 냉감소재들은 전반적으로 기능이 많고 관리가 편리한 편이지만 소재별 특징을 알아두면 좀 더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오래 입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 등 천연옷감, 중성세제 손세탁

여름 옷의 대표 소재인 리넨(linen), 라미(ramie), 헴프(hemp) 등 마 섬유 천연옷감들은 수분 흡수율과 열전도율이 높아 땀을 흡수하고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피부에 잘 달라붙지 않고 건조와 통풍이 잘 되며 천연섬유 특유의 항균력으로 장마철 등 습한 날씨에 자주 찾게 되는 옷이다.

마 소재 의류를 세탁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섬유유연제 없이 중성세제를 사용해 손세탁 할 것을 권한다.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옷이 변색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라쿨은 드라이클리닝

여러 기능을 더한 합성섬유 냉감 소재들도 실용성이 높고 관리가 편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냉장고 바지'와 같이 폴리에스터를 주 소재로 한 사라쿨과 아스킨은 강력한 냉감효과와 자외선 차단 기능이 특징이다. 세탁은 미지근한 물에 손빨래하기를 권하고 사라쿨은 주로 옵과 혼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해야 한다.

◆천연 추출 원료 손세탁

뱀부는 대나무 추출 성분을 함유한 레이온 소재로 대나무의 청량한 감촉과 항균소취 기능을 지니고 있다.

옥수수 추출 원료로 만든 폴리에스터 원단인 젠트라(zentra)는 면이나 울, 화학섬유 등 다른 소재와의 혼방이 쉽고 염색이 잘 돼 기존 소재의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특징이 있다.

코코넛은 코코넛 껍질에서 추출한 섬유로 만든 친환경 기능성 소재다.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 수분을 건조시키는 속도가 면보다 두 배 정도 빠르며 UPF 50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능력을 자랑한다.

천연섬유인 면에 냉감 기능을 접목한 아이스코튼(ice cotton)은 자연친화적 냉감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흡수성과 통기성이 뛰어나며 손세탁할 필요 없이 세탁망에 넣어 중성세제로 세탁기에 빨래한 후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옷걸이에 걸어 건조시키면 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장애를 넘어 사랑의 하모니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대원제약과 함께 콘서트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신인숙)은 국내 최초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의 사내 합창단 대원하모니와 함께 최근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대원하모니의 정기 연주회로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대원하모니와 한 무대에 선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하트하트재단의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현숙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대원하모니의 합창 공연과 대한약사회 합창단 공연, 국악예술팀 소리노리의 특별 공연으로 풍성한 무대가 이어졌다. 특히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가수 정동하의 협연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또 콘서트에서 진행된 후원활동을 통해 하트하트재단은 탄자니아 트라코마 퇴치사업과 발달장애 아동 음악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황재용기자 hsj1u 38@

서울SOS어린이마을 지원

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서울SOS어린이마을(원장 허삼환)의 설립기념일을 맞이해 약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서울SOS어린이마을은 1이어버스를 통해 들어온 유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한 가정에서 1명의 SOS어머니와 6~8명의 아동이 일반 가정처럼 생활하고 있다.

/김혜선기자

'밤낮' 바뀐 월드컵, 판촉 경쟁 한창

이번 월드컵은 브라질과 한국의 시차가 12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한국시간으로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한밤중이거나 이른 새벽에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 새벽 경기를 봐야 하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 최적화된 제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조용한 새벽에 집에서 경기를 보면 월드컵 시즌 특유의 짜릿함과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렵다. 이럴 때 분위기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월드컵 관련 제품이다.

락앤락이 최근 선보인 '비스프리 아이러브♥싸커 한정판 물병'은 지난달 선보인 '골텍션물병 10종'의 인기에 힘입어 브라질 월드컵에 맞춰 한정판으로 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브라질, 스페인, 독일 등 축구 강국으로 손꼽히는 8개국을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모자로 형상화된 뚜껑에는 각 나라별 국기가, 몸체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색상과 디자인의 유니폼이 그려져 있다.

월드컵을 더욱 즐겁게 응원하기 위해서는 맥주 등 주류가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워낙 이른 시간에 진행되기에 술을 마시기가 쉽지 않다.

하이트진로는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하며 무알코올 음료 '하이트제로0.00 2014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맥주의 맛과 청량감은 그대로 담았지만 제조 과정 중 알코올이 생성되는 발효 과정을 제외해 알코올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그라운드 위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표현한 한정판 패키지가 특징이다.

1시간이 넘는 월드컵 경기를 보다 야식의 대명사 라면이 생각나게 된다. 하지만 새벽 1시 또는 4~5시에 라면을 끓여먹자니 다음날 얼굴과 체중도 걱정일뿐더러 위가 소화를 하지 못할 것 같다.

농심에서 선보인 '야채라면'은 지방 함량과 열량이 국내 라면 중 최저 수준인 저칼로리 라면이다.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이 제로이며 육류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양파·마늘·생강·고추·양배추·재심(청경채류) 등 6가지 야채로 만들어 지방이 1g에 불과하다. 열량도 350㎉로 일반라면보다 200㎉ 이상 적으며 깔끔하고 개운한 맛을 낸다.

/정혜인기자 hlkim1454@

새벽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 선보

세컨드 가전… 사용 간편 판매 급증

세컨드 가전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메인' 가전을 속속 대체하고 있다. 바빠진 라이프 스타일과 소규모 가족 단위로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기 간편해 더 자주 손이 가는 보조 제품들이 주 제품의 역할을 꿰차고 있는 것.

청소기도 유선보다는 무선이 대세다. 실제로 린나이가 지난 4월 실시한 청소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롭게 구입할 청소기로 무선 청소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3%였다.

세탁기 시장에서도 소형 세탁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주로 몇 벌 안 되는 옷에서 세탁할 옷감을 모아두고 주말에 세탁기를 돌리던 과거와는 달리 젊은 워킹맘들은 빨래감이 나오는 대로 바로 세탁할 수 있는 소형 세탁기에 더 의존하고 있다. 1인 가구나 신혼 가정의 경우에는 세탁양이 적어 모아두었다가 되려 입을 옷이 없어 난감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소형 세탁기를 자주 쓴다.

에어컨 보완 제품으로 인식되던 제습기도 여름철 대표 가전이자 에어컨 경쟁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에어컨보다 사용 비용이 적고 이동이 편해 시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황제를 위하여' 이민기

배우 이민기(29)는 올해 개봉한 영화 '몬스터'와 '황제를 위하여'에서 줄곧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흥행의 쓴 맛을 봤다. '황제를 위하여'는 장르는 액션 누아르지만 관객 사이에선 베드신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과 배우로서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 나갔다.

◆욕망에 대해 말하다

'황제를 위하여'는 승부 조작에 연루됐던 야구선수 이환(이민기)이 부산의 조직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되는 한 남자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다. 술집 바담 연수(이태임)와의 베드신이 화제에 오른 것에 대해 이민기는 "베드신 자체는 부담스럽진 않았다"고 말했다.

"오직 베드신만을 위한 영화였다면 부담됐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환이의 욕망의 대상일 뿐이죠. 환이가 쟁취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연수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장면이었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베드신이 어떤 의미인지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태임이 와도 자연스럽게 촬영하려 했어요."

'황제를 위하여'에 관객 대부분은 '너무 자극적이고 세다'는 반응을 보였고 함께 출연한 박성웅의 전작 '신세계'와도 비교했다.

"이 영화는 누아르인데 댓글 중에 '방향을 똑바로 해라 누아르나 에로냐'는 것도 봤어요. '신세계'가 스토리 위주의 누아르라면 '황제를 위하여'는 감정과 이미지로 그려진 영화예요. 질감 자체가 달라요."

누아르 영화에는 남자 주인공을 파멸로 몰고 가는 '팜므파탈' 캐릭터가 필요하지만 연수는 그렇지 못했다.

"만약 환이가 연수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겠죠. 원래 시나리오엔 연수와의 애정이 제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영화의 색을 확실하게 끌고 가기 위해 수정이 된 거죠. 연수가 환이에게 진짜 사랑이라면 굳이 베드신이 필요 없어도 됐어요. 그럼 장면 없이도 사랑은 충분히 표현되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는 욕망과 그 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 가장 아끼는 캐릭터는

데뷔 이후 이민기는 줄곧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 영화에 출연해왔다. 또 다른 장르에 출연해도 반드시 상대 여배우와 호흡을 맞추는 캐릭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올해 선보인 '몬스터'와 '황제를 위하여'는 확실히 이민기의 전작과는 다른 발걸음을 띠고 있다.

"제가 지금 스물 한 두 살 이었다면 이런 역할이 오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서른이 됐으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지'한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저기와 '내 심장을 쏴라'에서 맡은 승민이 캐릭터는 환이와는 또 다르죠. 작품 자체가 밝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서른이면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다. 하지만 이민기의 필모그래피는 꽤 풍부하다.

"가장 애정하는(아끼는) 캐릭터는 느리바 다지고 꽃미남 밴드 주병화예요. 준비할 땐 힘들었지만 정말 재미있게 즐기면서 찍었거든요. 한 달 밤을 꼬박 새웠는데도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 서른 됐다고 일부러 '센' 캐릭터 맡지 않아
> '태릉선수촌', 지금의 이민기를 만든 작품
> ❞

가장 애착가는 캐릭터가 있다면 가장 고마운 캐릭터도 있을 터.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진 '태릉선수촌'의 힘이 가장 컸어요. 그 때 모델일 하다가 연기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스스로에게 '인생을 걸고 연기해봐라' 고 말했어요. 그 전까진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채 오디션에 덜컥 합격해서 연기를 했거든요.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안이 벙벙한 채 연기를 한 거죠. 일일연속극 하나 마치고 '태릉선수촌'을 하면서 연기라는 게 정말 대단하고 신기하다고 처음 느꼈어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죠."

연기에 인생을 걸었다는 그는 'SNS나 예능을 잘 안하는 이유는 날 것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다. 이민기의 모습은 연기로서, 역할로서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한다. 앞으로 그의 연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이세민기자 lsmkim@metroseoul.co.kr
사진/(주)엔케이물산미디어 디자인/최승미

KBS2 '인간의 조건' SBS '도시의 법칙' SBS '룸메이트'

질문 던진 예능, 시청자 답변 제각각

어디서·어떻게·왜 사는지 묻는 리얼 예능 중간 성적 보니
베스트 '인간의 조건'·굿 '도시의 법칙'·낫굿 '룸메이트'

리얼 예능이 시청자에게 묻는다. "어디서 어떻게·왜 사느냐"고. 출연진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만 생활하거나 무일푼으로 뉴욕에서 생존한다. 주제에 충실한 방송이 있는 반면 흥미 위주로 초심을 잃은 예능 프로그램도 있다.

◆기획의 충실 메시지 완벽

KBS2 '인간의 조건'은 '어떻게 살아야 좋은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 여섯 명의 출연자(김숙·김신영·김지민·김영희·박은영 최희)는 '아르바이트로만 살기' '고기·밀가루 없이 살기'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기' 등 주제에 따라 생활한다.

출연진은 지난 21일 방송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개그우먼 김영희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청년들에게 많이 배웠다"며 "물건은 살 때만 기분이 좋고 시간이 지나면 부질없는 것"이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느림의 미학도 전했다.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천연 조미료나 화장품 등을 직접 만들었다. 밀가루를 먹지 않으려고 도시락을 준비했다. 완성품에 익숙한 현대인에겐 시간 낭비로 여겨지는 행동이다. 그러나 조미료나 도시락 반찬을 만들면서 사람과 공유한 시간과 소통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재미가 컸다.

◆출연진 내적 성장 기대

SBS '도시의 법칙 인 뉴욕'은 7명의 출연진(김성수·이천희·정경호·백진희·문·에일리·존 박)이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무일푼으로 생존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인은 왜 어디서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종합적으로 묻는다. 특히 화려한 도시를 상징하는 뉴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출연진의 집은 공장지대에 있다. 이들은 거리에서 쓸 만한 물건을 주워 가공해 텅 빈 집을 꾸민다. 작은 변화에 큰 행복을 느낀다. 물질에 익숙한 도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한국에서 가져온 가래떡으로 며칠을 버틴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지만 국내 유명 연예인들은 구직의 어려움을 체험한다. 이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작은 일을 한다. 일자리의 소중함을 전하고 번 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 동료들과 고민한다.

지난 11일 첫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뉴욕 생존기를 관찰하는 재미를 준다. 뿐만 아니라 출연진의 내적 성장이 그려질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흥미 위주 억지 설정 불편

'룸메이트'는 1인 가구를 조명한다. 독신 연예인 11명이 함께 생활하는 일상을 담아낸다. 지난달 첫 방송된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성장'이다. 허술보 SBS 예능국장은 4월 간담회에서 "시대·세대의 공감과 소통이 올 SBS 예능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며 '룸메이트'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방송은 표류하고 있다. 일상을 공유한다는 기획 취지는 출연진의 장기자랑으로 무색해졌다. 과거 SBS 예능프로그램 'X맨'이나 '강심장'을 짐으로 옮겨 놓은 듯하다. 억지 설정도 관찰 예능을 어색하게 한다. 남녀 출연자를 로맨스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흥미 위주로 방송이 흘러가고 있다.

시청자들은 "연인이 되면 이사를 보내준다는 규칙부터 불편하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특히 박민우와 박봄은 지난 방송에서 다른 출연진을 놀라게 하기 위해 연인 설정으로 몰래 카메라를 준비했다. 방송 초반 서강준을 둘러싼 나나와 홍수현의 삼각 관계도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억지 설정이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김재중 아시아 특급 인기

'트라이앵글' 70억원 선판매·1억뷰 돌파

JYJ의 김재중(사진)이 가수와 연기자로 아시아에서 절정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중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방송중인 김재중 주연의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이 중국과 일본에서 연일 화제다. 이와 함께 김재중의 지난 작품인 '닥터진'과 '보스를 지켜라'까지 다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오며 아시아에서 변함없는 '킹'의 인기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트라이앵글'은 중국 최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텐센트에서 1억 건이 넘는 재생수를 기록했다. 중국 김재중 팬클럽이 직접 제작한 응원영상은 지난 10일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의 총 144개 스크린에서 한 달 동안 노출될 예정이다. 2011년 방송된 '보스를 지켜라'도 하루에 약 4만 5000건씩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 김재중이 부르고 작사에 참여한 '트라이앵글' OST '살아도'는 발매 후 일본 아이튠즈 OST 차트에서 2위, 전체 싱글차트에서 4위에 올랐다. 트위터에서도 핫워드 1위와 유명인 1위에 '김재중'이 올랐고,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재중 만나고 싶어(ジェジュンに会いたい)'가 등록되는 등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다음달에는 BS재팬과 후드라마채널, 오사카 지상파 TVO에서 '닥터 진'이 방영된다.

소속사는 드라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재중의 파워는 '트라이앵글'이 일본 중국 태국 등에 총 700만 달러에 달하는 선 판매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가져다 줬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공식 방영될 예정이지만 일본 팬은 인터넷을 통해 대사를 직접 번역해 감상하고 있다. 중국의 한 한국 드라마전문 사이트에서는 9.6점의 가장 높은 평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

싸이 '젠틀맨' 뮤비 7억뷰 대기록

지난해 공개 후 유튜브 조회 꾸준히 늘어

국제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7억뷰를 돌파했다.

지난해 4월 13일 유튜브에 처음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7억 9597뷰(21일 오후 기준)를 기록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시건방춤과 싸이만의 몸 개그, 웃음 코드가 잘 담긴 작품이다. MBC '무한도전' 멤버들과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가인이 깜짝 출연했다.

싸이를 국제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강남스타일'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팬으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다. 공개 4일만에 1억뷰를 돌파했고 지난해 4월 22일 2억뷰, 5월 9일 3억뷰, 6월 7일 4억뷰, 7월 31일 5억뷰, 12월 13일 6억뷰를 달성하며 꾸준하게 조회수 갱신을 기록해왔다.

한편 싸이는 최근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20억뷰를 돌파하는 기록 달성에도 성공했다.

유튜브 조회수 7억뷰를 달성한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의 축하물 /YG엔터테인먼트

또 지난 9월 선 공개된 신곡 '행오버'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21일 기준 조회수 7475만뷰를 넘어섰나. 빌보드 싱글 차트에도 26위로 진입하는 등 전 세계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박전현기자 hhj0427@

간만에 유쾌상쾌 기분좋은
드라마 탄생!
18세
본부장님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
코믹 오피스 활극
오늘 밤 11시 tvN 방송
서인국 | 이하나 | 이수혁 | 이열음 연출 유제원 | 극본 양희승 조성희

'명량' 패러디 포스터

'명량' 홍명보호 패러디 응원

영화 '명량'을 패러디한 홍명보호 응원 포스터와 영상이 화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의 이름을 빗댄 '명보' 포스터에는 이순신 역을 맡은 최민식 대신 홍명보의 얼굴이 있다. 주연배우는 홍명보로 적혀 있다. 23일 열린 알제리전을 앞두고 "우리는 절로 살자리에 잘 수 없다"고 적은 카피는 웃음을 전했다.

또 '명량'의 티저 예고편에서 착안한 '명보' 패러디 영상, '명량'을 재치 있게 패러디한 조석 작가의 웹툰 '마음의소리'도 웃음을 선사한다.

다음달 30일 개봉의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을 기경으로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명량대첩을 그린 전쟁 액션 대작이다. 최민식·류승룡·조진웅·김명곤·진구·이정현 등이 출연한다.

/석진환기자 [illegible]

뮤지컬 축제가 시작된다

DIMF 28일 초청작 상영 등 17일간 일정 돌입

2014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이하 'DIMF')이 오는 28일 두 편의 공식초청작 상영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축제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DIMF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슬로건 '익사이트 글로벌 K 뮤지컬(Exciting Global K Musical)'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는 한편 다양한 해외 뮤지컬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

그동안 흔히 접해온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의 상업적인 뮤지컬이 아닌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프랑스, 중국 등 제 3세계 뮤지컬 시장이라 불리는 국가의 대형 뮤지컬을 초청했다.

개막작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와 독일을 넘나들던 이중간첩 마타하리의 일생을 다른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동유럽 특유의 공연 미학이 돋보이는 뮤지컬로 슬로바키아에서 1년 간 장기공연돼 전석매진을 기록했다.

두 번째 개막작인 '마마 러브미 원스 어게인'는 중국에서 실제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어머니를 칼로 찌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국적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한 뛰어난 작품성으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러시아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DIMF

폐막작인 '몬테크리스토'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을 무대에 올린 러시아 뮤지컬이다. 빠른 전개와 아크로바틱을 응용한 화려한 앙상블의 군무, 강렬한 캐릭터가 러시아 특유의 음악 선율, 록 음악과 어우러져 이미 한국 뮤지컬 전문가들의 극찬을 끌어냈다.

공식초청작 '까당스'는 프랑스 특유의 무대 상상력을 통해 탄생한 음악극 퍼포먼스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관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 실험극과 뮤지컬적인 요소가 결합해 독특한 무대 체험을 선사한다.

이밖에도 god의 김태우가 주인공을 맡았으며 다국적 프로덕션이 함께 한 뮤지컬 '로스트가든', 뉴컴퍼니 극단과 강소성연예집단이 뜻을 함친 중국 한·중 합작 뮤지컬 '에이화엔싸' 등이 무대에 오른다.

/박진환기자

'세련된' 트로트 콘서트

'트로트엑스' 프로듀서·참가자 출연하는 신개념 공연

올 여름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린다.

'트로트엑스 콘서트'가 다음달 12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린다. 지난 6일 종영한 엠넷 '트로트엑스' 출연진이 꾸미는 무대다. 트로트 프로듀서 4인방 태진아·설운도·박현빈·홍진영, 우승자 나미애를 포함한 톱8 진출자 벤 알로엠 미스터팡 지원이 이지민 레이디스 구자억이 출연한다.

앞서 '트로트엑스'는 어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트로트를 댄스·일렉트로닉 힙합 등 여러 장르와 섞어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첫 회 등장했던 우승자 나미애는 약 30년 동안 무명 트로트 가수로 생활하며 쌓아왔던 내공을 아낌없이 무대 위에 쏟아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나미애가 불렀던 '님은 먼 곳에' 영상은 방송 직후 조회수 15만 건을 육박하며 인기를 모았다. 또 20대 초반의 참가자들이 보여준 젊은 감각의 트로트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엠넷 '트로트엑스 콘서트' /CJ E&M

이번 콘서트 역시 '트로트의 재발견'이라는 콘셉트 아래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CJ E&M 음악사업부문 관계자는 "트로트 스타 태진아·설운도·박현빈·홍진영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인증한 신예 트로트 가수들까지 출연한다는 소식에 고른 연령층에서 예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이나 시댁 처가댁의 효도 선물로 30대 예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신입사원부터 사장님까지 전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공연인 만큼 직장 단체 예매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김지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무더위 식혀주는 대학로 연극

공포물 '학교괴담'·스릴러물 '술래잡기' 공연

공포와 스릴러 연극이 무대에 올라 관객의 여름 무더위를 식힌다.

'학교괴담'(다음달 30일까지 레몬아트홀)은 교내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자살 사건을 학교 이미지에 누가 된다는 이유로 은폐한 한 명문여고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공포물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우정과 사랑을 잃고 각자의 목표만을 위해 상대를 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관객에게 강한 공포심을 주고자 섬뜩한 음악과 무대장치가 사용됐다.

'술래잡기'(다음달 21일까지·우리네극장)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복역한 강대수, 아버지의 폭대로 인해 방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송지아, 보육원 생활로 인해 애정결핍을 겪고 있는 오수련 등 세 인물의 이야기다.

학교괴담

암암리에 행해지는 가정 폭력과 아동 성범죄, 정당하지 않은 법의 심판 등 여러 사회 문제를 등장인물을 통해 보여준다. 극장 전체를 인물들이 갇힌 밀실로 설정함으로써 관객이 관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갇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극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술래잡기

/[illegible]기자

클로제 15번째 골… 월드컵 새 역사

개인통산 최다골 타이…독일, 가나에 극적 무승부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15번째 공중제비가 위기의 전차군단을 구했다.

독일의 베테랑 골잡이 클로제는 22일 브라질 포르탈레자의 카스텔라오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G조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 교체 투입돼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2-2 무승부를 끌어냈다.

포르투갈과의 1차전을 벤치에서 지켜봤던 클로제는 이날도 1-2로 뒤지던 후반 24분 뒤늦게 브라질 월드컵 그라운드를 처음 밟았다. 그러나 해결사 본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후반 26분 왼쪽에서 올라온 독일의 코너킥이 베네딕트 회베데스의 머리를 맞고 골대 오른쪽으로 흘렀고, 클로제는 미끄러지듯 발을 내밀며 이를 골로 연결시켰다. 교체된 지 2분 만에 나온 극적인 동점 골이다.

이로써 월드컵 개인 통산 15번째 골을 터뜨린 클로제는 이 부문 최고기록을 보유한 호나우두(브라질)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2001년부터 독일 대표로 활약한 클로제는 네 번째 월드컵에 출전해 대기록을 달성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3골을 퍼부은 것을 시작으로 헤딩으로만 5골을 넣어 세계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5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다.

4년 전 남아공 대회에서도 4골을 꽂았고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월드컵에서도 특유의 동물적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15번째 골을 넣고 전매특허인 공중제비 세리머니를 한 클로제는 "공중제비를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성공했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이어 "선발로 경기에 출전하든 교체 선수로 나오든 상관없이 모든 경기는 중요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 메시 결승골 아르헨 2연승

앞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이란의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의 극적인 결승골이 승부를 갈랐다. 아르헨티나는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란을 1-0으로 꺾고 2연승으로 16강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월드컵에서 극도로 부진했던 메시는 세 번째 출전한 이번 월드컵에서 매 경기 골을 넣으며 세계 최고 선수의 이름값을 했다. 메시, 곤살로 이과인, 세르히오 아게로를 최전방에 내세운 아르헨티나는 융단 폭격을 가했지만 작정하고 비기기 작전으로 나선 이란의 수비에 막혀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다.

전반을 수비 작전으로 나선 이란이 후반들어 기습적인 공격으로 아르헨티나를 놀라게 하긴 했지만 일방적인 경기는 후반까지 계속됐다. 결국 후반 추가시간에 메시가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슛 기회를 엿보다 재치 구치네자드를 제치고 왼발 슈팅을 때렸고, 공은 골대 왼쪽 그물망을 시원하게 흔들었다.

아르헨티나의 알레한드로 사베야 감독은 경기 후 "골키퍼가 2명이라도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메시의 결승골을 칭찬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독일-가나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리고 공중제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탈락' 잉글랜드 광고서도 퇴출

월드컵 이모저모

조별에선 탈락 수모를 당한 잉글랜드 대표 선수들이 자국 광고계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영국 대중지 미러는 22일 "도넛부터 샴푸까지 선수들이 출연하지 않은 광고가 없을 정도고 지금도 TV를 통해 대표 선수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지만 곧 다른 CF로 대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경기에서 2패를 당한 후 잉글랜드 팬은 대표 선수를 광고 모델로 쓴 기업에 "왜 CF를 보면서 브라질 월드컵 기억을 떠올려야 하느냐"며 항의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체 광고를 내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굴욕의 주인공은 스티븐 제라드, 대니 웰벡, 대니얼 스터리지, 조 하트 등이다. 대형 제과업체 미스는 곧 제라드와 웰벡, 스터리지의 광고를 방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스터리지의 광고를, 질레트 면도기도 하트가 등장하는 광고를 폐기할 예정이다. 대표 선수를 모델로 한 각종 음료, 제과 등의 광고도 이른 시일 내에 사라질 전망이다.

우루과이전에서 2골을 먹은 잉글랜드 골키퍼 조 하트. /AP 연합뉴스

◆ 비빔밥으로 브라질팬 유치

한국과 벨기에가 27일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 맞춰 장외 음식 대결을 벌인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상파울루지회는 이날 상파울루시 코린치앙스 경기장 밖에서 브라질 축구 팬을 한국 대표팀 응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비빔밥과 벨기에의 대중음식인 홍합찜으로 맞붙는다.

앞서 열린 한국의 예선전에서 브라질 관중이 한국을 응원한 이유는 월드옥타의 활동 때문이다. /유순호기자

브라질 탈락 '대형사고' 날 수도

월드컵 프리뷰

24일부터 나흘간 16강행 확정을 위한 끝판 승부가 벌어진다. 조별리그 최종전이 매일 오전 1시와 5시 각각 2경기씩 열린다. 이날은 A조와 B조의 경기가 열린다.

◆ 호주-스페인(24일 1시 쿠리치바 스 경기장)

16강행이 좌절된 패자들 간의 경기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체면을 구긴 지난 대회 우승국 스페인이 3패로 돌아갈 지가 오히려 세계 축구 팬의 관심사다. 예상 외의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가 이무런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는 스페인에 승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호주는 간판 스타인 팀 케이힐이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 네덜란드-칠레(24일 1시 바이시다 경기장)

2승씩을 거둔 팀들이 B조 1위를 놓고 대결한다. A조 1위가 유력시되는 브라질을 16강전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이겨야 한다.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 가장 큰 힘을 쏟을 전망이다.

◆ 카메룬-브라질(24일 5시 마네 가린샤 국립 주경기장)

브라질이 A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16강행 좌절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흥미를 모은다.

브라질과 멕시코가 1승1무(승점 4)로 앞서 있고 크로아티아가 1승1패(승점 3)로 뒤쫓고 있다. 골 득실에서 +2로 멕시코(+1)에 앞선 브라질은 카메룬과 비기기만 해도 최소한 조 2위를 확보해 16강에 나간다. 그러나 카메룬에 지고 크로아티아와 멕시코가 비기면 브라질은 탈락한다. 카메룬과 크로아티아가 이긴다면 브라질은 멕시코와 골 득실을 따져야 한다.

브라질로서는 조 2위를 하는 것도 굴욕이기 때문에 필승의 각오로 나설 전망이다.

◆ 크로아티아-멕시코(24일 5시 페르남부쿠 경기장)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두 팀은 '닥치고 승리'의 자세로 경기에 임한다. 멕시코가 이기면 크로아티아는 탈락한다. 무승부가 나온다면 크로아티아는 카메룬의 승리를 빌어야 한다. 크로아티아가 이길 경우 멕시코가 카메룬의 승리를 바란 다음 브라질과 골 득실을 따져야 한다.

카메룬이 브라질을 꺾어주는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상대를 이겨야 한다. /유순호기자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양희영 생애 첫 메이저 우승 눈앞

LPGA US오픈 3R 공동 선두

양희영(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눈앞에 뒀다.

양희영은 2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골프장에서 열린 제69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4개를 묶어 2언더파 68타를 쳤다. 중간합계 2언더파 208타를 적어낸 양희영은 전날 공동 3위에서 공동 선두로 올라서 미셸 위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날 단독 선두였던 미셸 위는 2타를 잃고 공동 선두로 내려왔다. 아마추어 시절 동갑내기인 양희영과 미셸 위는 여자 골프계의 유망주로 주목받아 왔으며 마침내 첫 메이저 우승을 놓고 세계 최고 무대에서 맞붙게 됐다.

미셸 위에게 4타 뒤진 채 3라운드에 나선 양희영은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4개를 낚고 보기 3개를 기록해 1타를 줄였다. 후반 들어서는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쉬어 1타를 줄이고 미셸 위와의 격차를 없앴다.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인 줄리 잉크스터(미국)는 중간합계 2오버파 212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2012년 이 대회 우승자 최나연도 호주국가대표 이민지(18)와 함께 3위 그룹(2오버파 212타)에 합류했다.

양희영은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최나연(27·SK텔레콤)과 마지막 날 챔피언조에서 다시 대결한다. 당시 3라운드에서 6타나 뒤진 최나연에게 밀려 4타차 준우승에 그치는 아픔을 맛봤다.

양희영은 "2년 전 이 대회에서 챔피언조에서 뛴 경험을 잘 살려 감정 조절을 잘해 내일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한 달간 큰 대회인 US오픈을 준비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정신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고 우승을 향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그린 공략이 정말 어려운데 다행히 전날보다 아이언샷, 퍼트 감각이 모두 좋아서 오늘 좋은 성적을 냈다"며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디펜딩 챔피언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3타를 잃고 공동 37위(10오버파 220타)에 머물렀다. 공동 선두와는 12타차로 벌어져 타이틀 방어는 힘들어졌다.

한편 백전노장 잉크스터는 올해를 끝으로 US여자오픈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해 마지막 라운드에서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978년부터 이 대회에서 출전해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우승했다. 메이저대회 7회를 포함해 LPGA 통산 31승을 기록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김효주 KLPGA 첫 메이저 품었다

루키 신예 김효주(19·롯데·사진)가 기아자동차 제28회 한국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22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1개, 보기 3개를 기록하며 최종 합계 3언더파 285타를 쳤다.

아마추어 시절인 2012년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는 프로로 전향한 뒤 같은 해 12월 현대차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고 지난해 KLPGA 신인왕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통산 3승째이자 첫 메이저 트로피까지 품에 안으며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백선우(20·정관장)가 1언더파 287타로 2위를 차지했고, 정희원(23·파인테크닉스)이 이븐파 288타로 3위에 올랐다.

2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효주는 전반에 버디 1개와 보기 1개로 타수를 줄이지 못하는 사이 한 조 앞에서 출발한 정희원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정희원은 10번홀(파5)에서 2.5m 버디 퍼트를 성공하며 1타차까지 좁혔다.

김효주는 13번홀(파4)에서 쉽지 않은 2m 거리의 파퍼트를 홀에 집어 넣으며 흔들리지 않았다. 반면 정희원은 14번홀(파5)까지 2타차로 추격하다 15번홀(파4)과 16번홀(파4)에서 잇따라 보기를 범하며 김효주에 4타차로 밀어졌다.

이후 김효주는 직접 핀을 노리기보다 안전한 곳에 공을 떨어뜨린 뒤 파를 잡는 신인답지 않은 차분하고 노련한 전략으로 선두 자리를 굳혔다. 18번홀(파4)에서는 두 번째 샷을 그린 앞 러프에 빠뜨리고 2m 남짓한 파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1타를 잃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유순호기자

맞대결 최현
2안타 승리 견인

추신수가 9회초 솔로 홈런을 친 뒤 홈에서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추신수 30일 만에 7호포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30일 만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22일 미국 애너하임의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2로 뒤진 9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케빈 젠슨의 시속 154㎞짜리 직구를 받아쳐 중앙 펜스를 넘기는 대형 솔로포를 터뜨렸다.

지난달 23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 이후 30일 만의 홈런이자 시즌 7호다. 앞서 1회초 1사 3루에서 등장한 첫 타석에서는 2루 땅볼로 주자를 홈에 불러들이며 9회까지 팀이 거둔 2점을 모두 책임졌다. 4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52를 유지했다.

추신수의 활약에도 텍사스는 10회말 무사 1루에서 하위 켄드릭에게 좌익수 쪽 끝내기 2루타를 맞아 2-3으로 패했다.

상대팀 승리의 주역은 한국계 포스 최현(미국명 행크 콩거)이었다. 최현은 6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마르티네스의 직구를 공략해 좌익수 쪽 2루타를 쳐냈다. 팀의 첫 안타를 친 최현은 이프렌 나바로의 1루 땅볼 때 홈을 밟았다.

최현은 1-1로 맞선 8회말 우전 안타를 치는 등 3타수 2안타 1득점으로 활약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 잠실

KIA	100	000	XXX	1
두산	000	00X	XXX	0

승리투수 = 양현종(14승 4패) 패전투수 = 볼스테드 (5승 5패) <5회 강우콜드게임>

■ 목동

SK	031	000	010	5
넥센	100	111	00X	10

승리투수 = 소사(8승 2패) 패전투수 = 전유수(3패) △홈런 = 박정권12 13호(2회2점) 최정 등 (넥센) 박병호 48호

■ 대전

LG	100	081	000	10
한화	031	010	011	7

승리투수 = 류제국(5승 8패) 세이브투수 = 봉중근 (3패 12세이브) △ 패전투수 = 앨버스(5승 7패) △ 홈런 = 정의윤 5호(5회3점) 이병규 등 (LG) 김태균 (한화)

■ 마산

삼성	101	000	001	3
NC	000	000	000	0

△ 승리투수 = 윤성환(10승 6패) △ 세이브투수 = 임창용(4승 1패 25세이브) △ 패전투수 = 이재학(8승 7패) △ 홈런 = 나바로 13 14호(1회 9회 1점) (삼성)

과거부터 현재,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인천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